



전북대학교가 '2019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시상식에 참여한 정찬영 학생 아버지 정중국 씨, 허승훈 군, 오창환 신문방송사 주간, 김선희 전북대학교 부총장, 장유나 씨, 장민기 씨.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들

전북대, 이병기·최명희 청년문학상 당선작 시상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대표 장성수)과 공동 주관한 '2019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화단의 푸가'를 쓴 장민기(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과·2년) 씨가, 고등 부문에는 '해바라기 농담'의 허승훈(상계고·2년) 군이 각각 선정됐다.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를 쓴 장유나(동국대 문예창작과·1년) 씨가, 고등 부문에는 '나비무덤'을 쓴 정찬영(원광여고·3년) 양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부문 대학부 당선작 '화단의 푸가'는 삶의 모순을 파고드는 힘이 돋보이면서도 시를 이끄는 목소리에 절기가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 부문 고등부 수상작 '해바라기 농담

'은 발상과 비유가 신선하고 시적 전개가 자연스러우며 사물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정직한 작품으로 평가됐다.

소설 대학부 당선작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는 문장이 경쾌하고 간결할 뿐만 아니라 서사와 구성에 군더더기가 없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고등부 당선작 '나비무덤'은 폭력과 애도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며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는 고통을 나비 모티프로 섬세하게 형상화한 수작으로 평가됐다.

시상식은 전북대 김선희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신문방송사 관계자,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이 대학 총정실에서 열렸다. 대학 문학 공모전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문학상답게 올해 역시 많은 작품들이 응모했다. 시 부문에는 155명 585편이, 소설 부문에는 123명 128편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시 부문 심사는 유강희·김형미·김정

경·문신 위원이, 소설 부문 심사는 엄숙희·서철원·김완준·김소윤·최기우 위원이 맡았다.

오창환 문학상 운영위원장 및 신문방송사 주간은 "매년 작품을 보내주는 많은 학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높은 다양한 시선으로 삶을 성찰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김선희 교학부총장은 "본 문학상은 그간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들을 발굴해 내며 전북대의 자람이 되고 있다"며 "전북대학교만의 문화적 자산인 '가람 이병기' 시인과 '최명희' 소설가의 이름으로 발굴·육성되는 인재들이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는 1955년 전북대신문 창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와 논문을 공모했던 '학생작품 현상모집'이 모태가 됐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에서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1955년부터 현재까지의 문학상 수상작을 정리, 총 5권의 '전북대학교신문방송사 문학상 당선작 전집'을 지난해 발간했다. /장은성 기자

정음사국악원 김일환 교수, '전국전통공연예술 경연대회' 대통령상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주최로 열린 '제27회 전국전통공연예술 경연대회'가 최근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전통공연예술 경연대회는 전통공연예술의 발전과 국악 전 분야의 균등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정음사국악원 무용반 김일환 교수가 명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경연자들이 참여해 열린 경쟁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김 교수는 정음의 수군춤을 선보이며 명인부 종합대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1998년부터 정음사국악원의 무용반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음의 춤을 가르치는데 열정을 다해왔다.

또 무형문화재 이수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걸으며 꾸준한 연습과 집중훈련으로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일환 교수는 "이 상을 영광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신관철(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9호 수군춤 기능보유자) 선생님께 바친다"며 영광을 스승에게 돌렸다.

정음사국악원장(문화예술과장 이수천)은 "김일환 교수를 비롯한 수준 높은 교수진으로 정음사국악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배움을 원



하는 시민들은 주저 없이 정음사국악원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음사국악원은 가야금반, 고법반, 대금반, 무용반, 판소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학생 기준 월 1만원, 성인 월 1만5천원이다. 수강 관련 문의는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539-6412)으로 하면 된다. /정은희기자



제32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에서 김현서 어린이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전주부설초 김현서 어린이 대상

전국 최고의 어린이 판소리 등용문인 '제32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에서 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김현서 어린이가 '심청가' 중 '선인 따라가는 대목'을 열창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고창군은 지난 10~11일 동리국악당에서 제32회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를 열었다. 고창군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 대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대한민국 차세대 소리꾼의 등장을 알리는 대회로 명성을 얻고 있다.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이 모여 왕중왕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내로라하

는 27명의 꿈나무 소리꾼들이 고창 동리국악당 장대를 뜨겁게 달궜고, 최종 7명이 본선에 올랐다.

대상을 받은 김현서 어린이는 "까칠하고 소심한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민요를 배우러 갔다가 소리까지 배우게 되었다"며 "재미난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동리 신재효 선생을 비롯해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예술의 성지다"며 "앞으로도 꿈나무 소리꾼들의 육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희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고3 수험생 대상 문화교실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2020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와 함께 휴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수험생을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11월 20일~12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3시에 대입시험 준비로 마

음의 여유가 없었을 수험생들이 박물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긴장을 내려놓고 휴식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마련했다.

'수험생을 위한 문화교실'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날 아름다운 공연을 보고 듣고 즐긴 후, 국립전주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 단체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교육·교육일련)에서 운영 일정 확인 후 전화(063-220-1035, 1016, 1021)로 신청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수험생을 위한 문화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휴식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1년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